



그리스도의 생애

HIGHLIGHTS in the Life of CHRIST

JESUS—THE
GREAT TEACHER

2

예수님—
탁월한 선생님

Years of Preparation ◆ 다년간의 준비

Anointed for ◆ 하나님의 일을 위해

God's Work 기쁨부음을 받으셨음

Jesus Teaches a ◆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Village Woman 가르치시다

Jesus Teaches a Rich Man ◆ 예수님이 부자를 가르치시다

YEARS OF PREPARATION

Jesus learns about people's needs

Jesus grew up in Nazareth, a city of about 15,000 in the province of Galilee. It was a stopping place on a great highway between Jerusalem and the seaports of Tyre and Sidon. Vice and crime were so common that people said: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Jesus saw the sinfulness: the selfishness, corruption, cruelty, and rebellion against God. He saw that men and women were slaves of sin.

As Jesus worked with Joseph in his carpenter shop, He heard the men wishing for freedom from the Roman government. But Jesus knew that political freedom would not solve their problems. What the people needed was freedom from the sin that ruled their lives. He had come to the world to bring them this freedom. His name, Jesus, means Savior. The angel had told Joseph:

"You will name him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Jesus learns God's Word

Jesus studied God's Word and got ready for His life's work.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He understood God's Word better than His teachers. He loved it and always obeyed it.

다년간의 준비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다

예수님은 약 15,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항구 사이를 연결하는 큰 도로에 위치한 정박지였습니다. 죄와 불법이 보편화 되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심, 타락, 잔인함, 하나님을 반역 하는 것 등, 남여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할때 사람들이 로마정부로부터 자유를 갈구하는 바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자유가 그들의 문제를 풀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진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러 오신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바로 구세주란 뜻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른 말입니다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21.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열두살 때 그분의 선생님보다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Jesus is baptized

When Jesus was thirty He left Nazareth to go from town to town teaching God's Word. God sent Him to where John the Baptist was preaching. John baptized Jesus in the Jordan River.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예수님이 설혼살 이었을 때 나사렛을 떠나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르치며 설교하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came up out of the water. Then heaven was opened to him,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coming down like a dove and lighting on him. Then a voice said from heaven, "This is my own dear Son, with whom I am pleased."

Matthew 3:16-17.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6-17.

For You to Do

1. Fill in the blanks:

"Jesus" means

Jesus was baptized in the

River by the Baptist.

God said: "This is my own dear"

2. What would Jesus save His people from?

.... a) The Roman government

.... b) Poverty and disease

.... c) Their sins

과 제

1. 빈칸을 채우십시오 :

"예수"의 뜻은

예수님은 세례 에 의해 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 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무엇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 a) 로마 정부

..... b) 가난과 재앙

..... c) 그들의 죄

ANOINTED FOR GOD'S WORK

Prophets, priests, and kings were anointed with oil to show that the Holy Spirit would help them work for God. The promised Savior was called the Messiah of Christ. Both names mean "anointed." Isaiah the prophet wrote about Him: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chosen me to
bring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free the oppressed
and announce that the time has come
when the Lord will save his people."

Luke 4:18-19.

Isaiah's prophecy came true in Jesus. He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good news. He touched sick people and made them well. The blind could see again. Captives of sin found liberty. Jesus said about Isaiah's prophecy: "This passage of Scripture has come true today."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심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일 가운데 역사하고 도와 주심을 바랐던 것입니다. 약속된 구세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불리워졌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실현하셨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했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이 어두운 자는 볼 수 있게 하셨으며, 죄의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r You to Do

3. Memorize Isaiah's prophecy.
4. What names mean "anointed?"
.....
5. Why could Jesus heal the sick?
.... a) He knew many remedies.
.... b) He had studied medicine.
.... c) The Spirit of the Lord anointed Him to do it.

과 제

3. 이사야의 예언을 암송하십시오.
4. 어떤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
5. 어떻게 예수님은 아픈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 a) 많은 처방을 아셔서 .
..... b) 약학을 공부하셔서
..... c) 주의 영이 그가 고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JESUS TEACHES A VILLAGE WOMAN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가르치시다

A trip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과한 여행

Jesus chose twelve men to be His helpers. We call them His disciples or students. Two of them, Matthew and John, wrote about Jesus' life. John tells about visiting Samaria.



예수님은 그의 조력자로 열두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 또는 생도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두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쓴 마태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사건을 썼습니다.

The shortest road from Galilee to Jerusalem went through the province of Samaria. Many travelers took the long way around because they hated the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Samaritans. They looked down on the Samaritans because they were of a different race and had different customs. But Jesus did not feel that way toward the Samaritans. He loved everybody. God had promised to send the light of salvation to all nations. So Jesus went through Samaria to take God's salvation there too.

For You to Do

6. Was Jesus friendly to Samaritans?
 a) No. They were of another race and religion.
 b) Yes. Jesus loved everyone.
 c) No. They were very sinful.

The water that satisfies

At the village of Sychar Jesus sat down by the well while His disciples went to buy food.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asked her for a drink. She was surprised that Jesus would speak to her.

Jesus answered, "If you only knew what God gives and who it is that is asking you for a drink, you would ask him, and he would give you life-giving water."

알고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었고 또 다른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 하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곳에서도 전파 하셨습니다.

과 제

6.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까?
 a) 아니요,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졌으니까요.
 b) 예,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셨어요.
 c) 아니요, 그들은 죄인이었으니까요.

꼭마르지 않는 물

수가성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나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넬데 대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Sir,” the woman said, “you don’t have a bucket, and the well is deep. Where would you get that life-giving water?” . . .

Jesus answered, “Whoever drinks this water will get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never be thirsty again.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which will provide him with life-giving water and give him eternal life.”

John 4:10-14.

When our body needs water we get thirsty. Our spirit needs something just as much as our body needs water. Until we find it we are unsatisfied and spiritually thirsty.

The Samaritan woman had tried to find satisfaction in love. She had been married five times and was living with a man who wasn’t her husband. Jesus knew all about her as soon as He saw her. He knew she would never be happy until her sins were forgiven. So He told her about her sins. The woman admitted that it was just as Jesus said.

The Samaritan woman realized that Jesus was a man of God, a prophet. She was sure that He could help her. She asked about how to worship God. Memorize Jesus’ answer:

“God is Spirit, and only by the power of his Spirit can people worship him as he really is.”

John 4:24.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0-14.

우리몸이 물을 필요로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몸이 물을 필요로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무언을 갈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까지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 안에서 만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섯번이나 결혼하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사함이 있기까지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죄에 관해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인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도울수 있는 분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한복음 4:24.

Jesus also let her know that He was the Messiah. How happy the Samaritan woman was to meet the Savior! From then on her life would be different. She ran to tell her friends about Jesus. They too needed this living water.

Many more believed because of his message, and they told the woman, "We believe now, not because of what you said, but because we ourselves have heard him, and we know that he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John 4:41-42.

People try to find happiness in things, love, sex, drugs, drink, education, power, religion, good works, or withdrawal from life. None of this really satisfies. Only Jesus and His salvation can quench your thirst.

For You to Do

7. Have you found real satisfaction in Jesus?

.....

Would you like to?

Read the above prayer five times.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를 만난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생수가 필요했으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 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41-42.

사람들은 사랑, 섹스, 마약, 술 취함, 교육, 권력, 종교성, 착한 일, 삶의 탈피 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는 아무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과 제

7.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셨습니까?

.....

..... 찾고 싶습니까?

..... 위의 기도를 다섯번 해 보십시오.

JESUS TEACHES A RICH MAN

Once a rich man came running up to Jesus, knelt before Him and asked: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receive eternal life?" He was trying to be good enough to get into that beautiful home in heaven. The rich man hadn't killed anybody or committed adultery. He hadn't stolen, lied, or cheated. He honored his parents.

Such a good man he was, and yet he lacked something. No one is good enough to get into heaven. His sin was selfishness. He thought more of his own comfort than he did of helping others. He loved money more than he loved God. He needed salvation just as much as the Samaritan woman had. To have true happiness and eternal life, we must put God first.



Jesus looked straight at him with love and said, "You need only one thing. Go and sell all you have and giv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riches in heaven; then come and follow me."

Mark 10:21.

예수님이 부자를 가르치시다

한번은 부자가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이려 했습니다. 부자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속여 취하기, 부모님 공경하기…… 등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부터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한 착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동으로는 하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자의 죄는 이기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주고 살피는 일 보다는 자기일에 더 안락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취했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영생을 가질려면 하나님 제일주의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0: 21.

Jesus would have given him what he was looking for, eternal life, but the poor rich man went away sad without it. He chose riches on earth rather than riches in heaven.

예수님은 부자가 찾고 또 필요한 영생을 주려고 했지만 가엾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부자보다 세상에서의 부요를 택했던 것입니다.

For You to Do

8. Do you think the rich man made a good choice?
9. Will trying to be good get you into heaven?

과 제

8. 부자는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천국에 가는데 착한 행위가 꼭 필요하니까?